

빅리그 첫 4안타... “맞추기·밀어치기 덕”

이정후, 메츠전 1볼넷2득점 활약
3경기 타율 0.583... 컨디션 되찾아
장타 노리기보다는 손쉽게 타격
“히트앤런 사인마다 안타 생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26)가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안타를 쳤다. 연합뉴스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4안타를 때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이정후(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최근 반등의 배경으로 ‘콘텐츠 집중’을 꼽았다.



이정후는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4안타 1볼넷 2득점에 도루 1개로 맹활약했다.

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58로 상승했다. 이달 들어 치른 3경기 타율은 0.583(12타수 7안타)으로 시즌 초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정후는 경기 후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다시 콘텐츠 타자 스타일로 돌아가고, 밀어 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밤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역시 “요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습을 찾으려는 중이다. 시즌 초반에는 장타를 노리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단순하게 타격하려는 모습이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 벤치는 이정후의 콘텐츠 능력이 돌아온 것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치고 달리기(히트 앤드 런) 사인’을 낸다.

이정후는 “히트 앤드 런 사인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안타가 나온다”고 만족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후반기 연패에 빠지면서 지난달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핵심 볼펜 투수를 줄줄이 트레이드로 내보냈다.

올 시즌을 포기하고 다음 시즌을 기약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부터 라파엘 데베스를 트레이딩하는 등 한 때 포스트시즌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데베스의 타격 부진과 마운드 붕괴로 사실상 와일드카드 경쟁에서조차 밀렸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56승 56패로 내셔널리그 3위이자 와일드카드 5위다.

와일드카드를 통한 포스트시즌 진출이 뒤쳐졌다. 준인 3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는 6경기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승차 지운 한화·LG 운명 건 주말 3연전

8~10일 선두 뺏기... 손주영 vs 폰세 마운드 대결 볼 만

한때 5.5경기까지 벌어졌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2위 LG 트윈스의 승차는 이



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정규 시즌 1위를 놓고 운명의 3연전을 벌인다. 한화는 LG와의 경기에 앞서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kt wiz와, LG는 안방인 잠실구장에서 ‘잠실 라이벌’ 두산 베어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LG는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을 모두 쓸어 담고 6연승 행진을 내달렸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9승 1패다.

시즌 초반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LG는 활화산 같은 타격과 단단한 마운드를 앞세워 만나는 팀마다 승전을 올린다.

반면 올 시즌에만 두 차례 10연승을 수확하며 거침없이 달렸던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로 주춤했다.

한화는 59승 3무 38패, 승률 0.608로 여전히 1위를 지킨다. 그러나 이제 LG가 61승 2무 40패, 승률 0.604로 승차 없는 2위로 쫓아왔다.

두 팀은 8일 LG 이영빈이 5월 28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 리그 한화와 LG의 경기 9회 말 2사 1루에서 빠진 공을 피하고 있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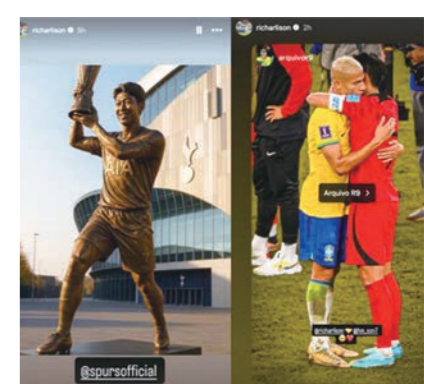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LG는 주중 3연전에 손주영-송승기-임찬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한화와 주말 3연전에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각각 주중 3연전을 먼저 치른다.

“손흥민 동상 세우자”... 애뜻한 동료애

한국에서 성대하게 치른 고별전을 끝으로 ‘캡틴’ 손흥민을 떠나보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동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뜻한 작별 인사를 남겼다.



‘손흥민 동상’ 이미지를 SNS에 올린 히사를리 히사를리송 인스타그램 캡처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손흥민의 ‘토트넘 고별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경기를 치른 토트넘 선수단은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4일 이른 새벽 유럽행 항공편을 탔다.

손흥민을 형처럼 따랐던 스트라이커 히사를리송은 인스타그램에 생생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듯한 손흥민의 동상 이미지를 게시하고 “스퍼스, 제발”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앞에 손흥민의 동상을 세우자는 얘기가.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한원재 지음 | 31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핵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환(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